

◎ 國內經濟 9.5% 成長에 디플레憂慮

韓 基 春

〈韓國外國語大學校教授·經博〉

1. 序 語

經濟와 政治는 어느 面에서 보나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요즘은 우리나라의 經濟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5共特委, 光州民主化運動 聽問會, 言論問題 聽問會 등의 政治的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나라 經濟는 下半期에 들어서도 매우 着實한 成長을 이룩하고 있다. 事實은 지난 봄만 하더라도 今年 下半期부터는 景氣가 沈滯局面으로 접어 들어 88년의 經濟成長을 지난날의 두 자리 數字에서 한자리 數로 멈추게 될 것이라는 展望이었으나 3/4分期的 成長實績으로 미루어 보아 올해에도 두자리 數의 成長勢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 아직도 위에서 列擧한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는 봄의 勞使紛糾의 激化현상에 對外貿易 환경의 惡化 등을 勘案할 때 89년의 經濟展望은 그렇게 밝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는 먼저 88년 今年의 景氣와 成長展望을 살펴보고 이어 우리 경제가 現在 안고 있는 課題들을 論議한 뒤 새해의 對內外 經濟與件을 展望하면서 89년 새해 經濟展望을 해보고자 한다.

2. 88년 經濟實績

今年들어 急激한 圓貨切上과 지난 4, 5월중의 勞使紛糾 그리고 여러가지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에도 不拘하고 上半期 11.7%의 成長率에 이어 3/4分期中 12.6%의 높은 成長率을 示顯하고 있다.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8년의 高度成長은 지난날의 輸出需要增加에 主導되어온 것과는 달리 消費需要의 增加와 設備投資 擴充 등의 內需增大에 基因한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國內市場需要의 堅持로 安定的 이면서도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輸出需要는 今年들어 昨年 伸張率의 약 切半 이하로 鈍化되어 1/4分期中에서 3/4分期間 輸出의 增加率은 12.3%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지난해 25.5%의 4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反하여 民間消費, 政府消費 그리고 總固定資本 형성은 그 伸張勢가 各各 8.0%, 8.9% 그리고 11.0%로 韓國經濟도 內需擴充으로 12.1%의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올해 3/4分期까지의 失業率은 昨年の 3.4%보다 0.8% 포인트 떨어진 2.6%를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好況의 代價로 物價高를 經驗케 했던 것이 事實인 바 今年 3/4分期까지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는 各各 1.8%, 5.6%의 上昇率을 示顯하고 있다. 이러한 物價高는 특히 上半期中 집賃값, 農産物가價, 서비스料金 등의 急激한 上昇에 高賃金, 不動産投機 등이 反映된 結果라 하겠다.

經濟實績推移

<表-1>

(單位：%)

	1987			1988		
	上半期	3/4分期	1/4~3/4分期	上半期	3/4分期	1/4~3/4分期
國民總生產	15.2	10.3	13.4	11.7	12.6	12.1
農林漁業	0.5	8.8	4.8	4.1	4.9	4.6
鑛工業	18.0	11.3	15.7	12.1	15.3	13.2
(製造業)	(18.7)	(12.1)	(16.4)	(12.6)	(15.8)	(13.6)
서비스業	12.6	11.8	12.3	11.3	11.8	11.5
國內總生產支出	13.4	9.5	12.0	10.9	11.8	11.3
民間消費	6.8	7.2	6.9	7.9	8.1	8.0
政府消費	14.9	7.0	12.1	5.2	16.1	8.9
總投資	13.3	11.3	12.6	8.9	14.7	11.0
(機械設備)	(17.6)	(11.2)	(15.5)	(4.6)	(20.2)	(9.6)
輸出	28.1	20.9	25.5	14.0	9.2	12.3
輸入	20.6	21.2	20.8	13.8	17.0	14.9
都賣物價上昇率	△2.4	0.8	0.5	1.2	0.6	1.8
消費者物價上昇率	3.2	3.5	3.0	4.7	0.9	5.6
失業率	3.8	2.7	3.4	2.7	2.4	2.6

資料：韓國銀行 調查部.

3. 89년 韓國經濟課題와 展望

이제 올해와 새해의 展望을 내리기에 앞서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원高·黑字基調下의 經濟運用問題 둘째, 經濟民主化와 勞使問題 셋째, 金利自由化 施策과 金融政策의 變更 그리고 關稅率引下政策과 內需市場에서의 競爭激化問題 등을 들 수 있다.

1) 원高·黑字基調下의 經濟問題

지난 12월 5일 對美달러貨에 대한 換率은 685 원으로 이로써 88년 들어서 14.5%의 切上이 實現된 셈이다. 美國 財務省이 지난 10월 24일자로 議會에 提出한 報告書¹⁾에 의하면 85년 9월의 G5會議 以後 日本 엔貨는 92%, 臺灣의 NT\$貨는 40% 그리고 韓國 원貨는 26% 밖에 切上되지 않았기 때문에 88년 美綜合貿易法上의 換率協商義務條項에 規定한 대로 韓國과 臺灣은 6個月 時限의 換率協商國으로 宜言함으로

써 원高 現象은 앞으로도 더욱 加速化되어 年末에는 680 원대에 이르며 오는 89년말의 樂觀線은 630 원대에서, 悲觀線은 580 원대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원貨의 14.5% 切上幅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經常收支의 黑字規模는 10월 말까지 이미 11,062백만 달러를 記錄하여 88년 年間으로는 13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展望이다. 이는 지난 88년초 政府가 當初目標로 내세웠던 70억 달러 黑字에 거의 2배에 가까운 規模이다. 86년부터 올해까지 연 3년째의 經常收支 黑字幅이 다른 先進黑字國들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큰 것이 問題가 된다. 88년의 黑字 13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올해 推定 GNP 1,430억 달러의 9.1%에 이르는 높은 比重의 黑字幅이기 때문이다. 이는 世界的으로도 높다는 日本의 85년 3.8%, 西獨 74년 2.7%, 美國 47년 3.7% 등의 記錄을 2배나 넘는 比重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가지 對外的인 壓力이 加重될 展望이며 따라서 經濟運用方式에도 달라질 것이다. 企業經營의 與件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問題는 貿易收支의 黑字를 줄이는 政策이 展開될 展望이다. 늘어나는 輸出 以上으로 輸入을 늘리는 일이며 이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貯蓄을 줄이고 投資를 늘리는 일과 같다. 즉 輸出 - 輸入 = 貯蓄 - 投資의 關係라고 볼 수 있으며 지난날의 輸出金融 等 輸出支援政策은 大幅縮少될 것이다. 輸入自由化率의 提高, 關稅率引下, 非關稅障壁의 철폐 등으로 國內市場은 그 開放의 幅이 더욱 넓어질 것이며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外國製品과의 競爭은 더욱 熾烈해 질 것임에는 틀림없다.

經常收支의 黑字는 우리 國民들의 貯蓄過剩現象(87년 35.6%)과 投資와 消費 등의 內需不足 現象의 結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黑字幅을 줄이고 最近 加速化되고 있는 圓高에서 나타날 「디플레이션」(deflation) 效果를 相殺하기 위한 內需振作政策이 要望되고 있다. 投資面에서는 새해 9조 2천억원의 豫算이 投入되는 西海岸開發事業을 비롯한 石油化學부문, 住宅부문, 農工地域事業에 投資가 活潑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消費面에서도 勞使紛糾로 上昇一路下에 있는 賃金引上은 勤勞者 所得의 增加를 가져와 消費需要와 輸入需要의 擴充이 이루어지는 效果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經常收支의 黑字는 資本收支의 赤字로 綜合收支의 縮少調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는 그간 經常收支의 黑

字와 同時에 資本收支도 黑字라는 매우 特殊한 現象을 보여 주었다. 政府는 IMF 8條國으로의 移行을 斷行하면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本格的으로 다루어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資本去來가 外換需給上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며 換率의 調整으로 輸出入을 自動調整하는 機能은 弱화되며 사람들은 海外資本市場에서의 「머니게임」(money game)에 沒頭하게 되고 産業界의 正常的인 原價節減, 品質管理, 生産性提高 등의 經營合理化에의 意慾을 喪失하며 部品の 海外調達(offshore sourcing)의 比重이 높아지는 이른바 企業과 産業의 空洞化現象을 招來하게 된다. 사람들은 애써서 製品을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는 證券놀이나 海外投資 등으로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思考方式이 만연하게 되어 理財運用에 高度의 솜씨를 驅使하는 財「테크」時代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本格化 될 輸出純化 現象

圓貨切上의 輸出單價 引上效果는 比較的 단기(1년)에 모두 나타나는 한편 物量面에서의 減小效果는 좀 더 長期間(3년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²⁾ 이것을 「J-커브」(J-curve) 效果라 하며 圓高의 效果는 切上初期(1~2년)에는 輸出單價引上에 따라 輸出金額이 늘어나나 切上 1년후부터는 수출단가의 引上效果는 없어지고 오히려 物價面의 減小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輸出은 鈍化된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즉 87년과 88년 圓貨切上의



賃 金 妥 結 現 況

<表-2>

(88년 10월 31일 現在)

區 分	對象業體	妥 結	進 度 (%)	上 昇 率 (%)		
				平 均	事 務 職	生 產 職
100 人 以 上 全 事 業 體	6,620 (5,963)	5,959 (5,371)	90.0 (90.1)	13.5 (7.5)	11.7 (5.3)	15.5 (8.7)
30 大 그 룹	587 (567)	539 (539)	91.8 (95.1)	16.4 (6.8)	11.9 (5.2)	18.4 (7.0)

註 : () 內는 前年同期值임.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動向報告, 88년 9월 중, p. 41.

영향은 그간 輸出單價引上效果가 나타나 87년 10.1%, 88년 上半期중 12.8%란 比較의 높은 上昇勢를 보여 주고 있으며 輸出物量의 鈍化 現象은 오는 89년부터 本格的으로 나타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 2/4 分期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輸出의 物量增加率은 고작 4.6%에 그치고 있으며 品目別로는 勞動集約的인 纖維, 신발류, 玩具人形 등의 輕工業 製品에서 輸出鈍化現象을 보여 주어 今年 9월 말까지 縫裁玩具業界의 200餘個의 零細企業이 倒産했으며 纖維業界에서도 30~40個 業體가 倒産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89년에는 元貨切上으로 元貨表示 輸出單價引上이 停滯된 反面 높은 賃金上昇率 등으로 輸出企業體의 收益率은 크게 鈍化될 것으로 展望되며 이들 企業의 投資意慾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雇傭機會의 縮小와 「디플레이션」 現象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3) 勞使紛糾激化와 高賃金 上昇率

6·29宣言 以後의 政治·經濟民主化의 過程에서 勞組結成과 勞使紛爭이 增加하는 趨勢 아래 있으며 與小野大의 政治環境과 올림픽 以後의 여러가지 社會的 非理問題의 解決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새해 봄부터는 勞使紛糾는 다시 激化될 展望으로 우리 經濟가 克服해 나가야 할 課題中 가장 至難한 일이라고 하겠다. 88년 들어 8월 말 現在 1,498件의 紛糾發生으로 昨年의 3,625件에 비하면 件數面에서는 41.3%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勞使交涉慣行面에서도 보다 合法的인

節次와 具體的인 爭點提示 등으로 많이 改善되었으나 勞使紛糾에서 연유되는 生産 및 輸出差 跌額은 紛糾의 大型化와 長期化로 昨年보다 더 큰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複數勞組의 허용, 勞組의 政治活動허용, 第3者介入허용, 勞使協議法의 廢止 등이 提議되고 있어 그 歸趨가 注目된다. 한편 賃金妥結動向을 살펴 본다면 <表-2>에서 볼 수 있듯이 88년 10월 말 現在 全體 對象業體 6,620個중 90%인 5,959個 業體가 妥結되었으며 30大 그룹의 妥結率은 91.8%로 다소 높으나 昨年 妥結率 95.1%에 비한다면 今年는 3.3% 포인트나 뒤진 妥結率이라 하겠다. 妥結된 賃金引上率은 平均 13.5% 水準이며 특히 生産職의 賃金引上率은 15.5%로 事務職 上昇率 11.7%보다 3.8%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87년에 이어 生産職 賃金上昇率이 相對的으로 事務職을 앞서고 있다. 87년과 88년 연이은 賃金引上率은 小計 21.0%에 이르러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餘力을 모두 消盡한 지금 89년에 다시 勞動生産性 向上率을 上廻하는 賃金引上率은 企業의 經營收支惡化와 競爭力低下를 招來하게 될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4) 金融政策의 變更과 資金事情의 緊迫化

經常收支의 黑字幅이 年 130억 달러를 넘는 外貨는 月平均으로 따져보면 約 10.8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每月 約 7,500억원의 通貨가 增加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大幅的으로 늘어나는 海外部門으로부터의 通貨를 通貨安定證券 등 價

..... 9.5% 成長에 디플레憂慮

還期日 1年 以內의 各種 債券發行에 의하여 吸收해 通貨管理目標內로 通貨調節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海外部門의 通貨膨脹을 막으려는 目的으로 發行해 온 通貨安定證券의 殘高가 17조원에 이르러 한해의 利子支給額 자체가 새로운 通貨增加 要因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해부터 政府는 通貨管理方式을 中央銀行 再割引制度, 支準率調整 그리고 公開市場操作 등 間接的·流動性 調節方式으로 轉換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金融機關別 與信限度制度는 支準率과 支金管理의 間接的 與信規제도 轉換케 된다. 또한 새로운 通貨指標로서 總通貨(M₂)에서 長期貯蓄性 豫金を 除外하고 第2金融國의 短期流動性 豫受金은 合計하여 새로운 M_{2A}라는 指標을 模索하게 될 것으로 본다.

大企業에 대한 與信規制政策은 持續될 것으로 본다. 大企業群의 直接金融調達로 銀行負債 償還義務의 賦課, 同一人에 대한 貸出 및 支給 保證限度를 지금의 25%, 50%에서 外國水準인 10~25% 線으로 下向調整하는 政策, 業體別 또는 系列企業群別 自己資本指導比率 指標에 따라 不動産處分 또는 系列企業整理의 義務

化, 系列企業群에 대한 相互出資의 規制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政策金融은 中小企業, 農漁村, 庶民生活 등의 落後部門에만 支援될 것으로 보여진다. 88년 12월 5일부터 與信金利와 一部 長期 受信金利를 中心으로 한 金利自由化施策은 우선 89년 上半期까지는 借入費用上 企業의 金利負擔을 1~2% 가량 加重시킬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株式의 時價發行이나 社債에 의한 資金調達 앞으로 海外市場에서의 外貨表示 起債의 길이 열릴 것으로 展望되어 資本調達源의 多樣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92년까지의 資本自由化에 副應한 國內外 債券의 現物 및 先物去來의 길이 서서히 트이게 될 것으로 본다.

4. 89년 經濟展望

1) 成長率

지난 3年間 지속되어온 高度成長勢는 89년에는 다소 鈍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89년 3/4分期末까지의 成長實績値는 12.1%로서 4/4分期의 成長率을 10.0%만 잡더라도 88년 한해

經濟展望

<表-3>

(單位: %)

	1987 ¹⁾	1988			1989
		上半期	下半年期	年間	
GNP 成長率 (%)	12.0	11.8	10.0	10.8	8.5
總 消 費	7.7	7.8	8.6	8.2	8.0
固 定 投 資	13.6	9.2	11.5	10.5	8.7
商 品 輸 出	24.4	17.8	12.2	14.8	8.8
商 品 輸 入	21.8	13.5	19.0	16.4	13.5
經常收支 (억달러)	98.5	60.0	58.0	118.0	90.0
貿 易 收 支	76.6	47.0	43.0	90.0	70.0
輸 出	462.4	270.0	305.0	575.0	649.0
輸 入	385.8	223.0	262.0	485.0	579.0
貿易外 및 純移轉	21.9	13.0	15.0	28.0	20.0
物 價 上 昇 率 ²⁾					
都 賣 物 價	0.5	2.7	3.3	3.0	3.0
消 費 者 物 價	3.0	7.3	7.7	7.5	7.5

註: 1) 韓國銀行 暫定值 2) 期中平均, 前年同期比 上昇率

資料: 韓國開發研究院「우리 經濟의 當面課題와 政策運用方向」, 1988年 10月.

의 成長率은 11.6%가 無難할 것으로 豫想된다. <表-3>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開發研究院에서 展望한 89년 成長率은 8.5%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 말에 본 今年度 成長率 8.5%가 88년 上半期末에 9.5%로 고쳐졌으며 最近에는 다시 11.5%로 上向調整된 點을 勘案할 때 89년의 上記 展望成長率 8.5%도 1% 포인트 程度上廻할 것으로 보여진다. 今年度の 實績値가 當初의 展望値를 크게 上廻된 理由는 輸出이 當初 豫想値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87년)末 韓國開發院, 韓國銀行, 政府 모두 약속이나 하듯 520억 달러대로 본 輸出이 아마 600억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展望되고 있기 때문이다. 89년 새해에는 輸出鈍化現象을 豫想하더라도 今年度の 伸張 餘勢가 明年度 上半期까지는 影響을 미쳐 成長勢를 지탱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民間設備投資도 圓高 現象과 勞使紛糾의 激化 등에 따른 投資意慾의 減退로 그 增加勢는 88년 3/4分期까지의 11.0%에서 89년중에는 8.7% 水準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消費는 賃金引上에서 오는 所得 向上에 따른 消費 增大로 89년에도 8.0% 水準의 比較的 높은 水準을 堅持할 것으로 豫想된다.

2) 物 價

88년 11월말 現在 都賣物價의 上昇率은 1.8%,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은 6.3%로 政府가 年初 上限線으로 策定한 各各 2.0%, 7.0%를 바짝 닳아서고 있다. 國際收支의 黑字, 秋穀收買價의 引上 등으로 88년 年中 物價上昇率은 都賣 2.0%, 消費者 6.8% 線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89년의 物價는 오는 봄의 賃金上昇率과 國際原資材價格動向에 따라 決定될 것으로 믿어 지난 88년의 物價高에 加算된 實質賃金引上分을 呑하게 될 때 올해 못지 않은 큰 幅의 賃金引上率(13~16%)에서 妥結되고 國際原資材價格은 世界景氣의 鈍化로 安定勢가 維持될 것으로 假定한다면 今年度 水準을 약간 上廻하는 都賣 2.5%, 消費者 7.5%의 上昇率 水準에 이르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3) 對外去來

이미 위에서 言及한 바 있듯이 88년도 輸出은 6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輸入은 521억 달러에 이르러 貿易收支만으로도 83억 달러의 黑字를 記錄하게 되며 이에 貿易外收支와 移轉計定收支의 黑字分 52억 달러를 합한다면 88년 經常收支의 黑字는 史上 最高額인 135억 달러를 記錄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89년에는 輸出 700억 달러, 輸入 635억 달러에 貿易收支 黑字 65억 달러 貿易外 및 移轉收支 黑字 50억 달러를 합쳐 小計 115억 달러의 黑字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輸出增加勢 15.9%, 輸入增加勢 21.9%를 勘案한 推定値이며 圓貨切上에서 오는 輸出鈍化效果를 다소 過少評價한 結果라고도 볼 수 있다.

5. 結 語

89년 새해는 우리經濟가 안락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變化에 보다 積極的이며 能動的인 對應案을 模索해 나가야 할 줄 안다. 美國行政府의 交替에 따른 對韓 通商壓力은 거세질 것이며 92년 EC 統合을 앞둔 交易環境은 더욱 惡化될 展望이나 한편 未修交國인 共產圈市場에 새로운 機會가 열리고 있는 點도 우리의 注目을 要한다. 나라안으로도 經濟民主化의 거센 물결속에 勞使協助下의 賃金引上自制, 限界에 이른 圓高의 克服策, 金利自由化를 中心으로 한 金融政策의 變化와 稅制改編으로 沮喪된 企業 投資心理의 振作策, 黑字基調下의 通貨量膨脹 속의 物價安定策 등은 우리經濟가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하고 解決·克服해야 할 일들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The Report in interational Economy and Fereign Exchange Poliey.,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by Treasury Department, Oct. 24, 1988.
- 2) 韓國貿易協會 圓貨切上の 影響과 向後換率政策方向, 1988. 11, p. 3.
- 3) 韓國貿易協會, 上揭書, p. 8. ♣